

‘계육산업 발전대책 연구회’에 거는 기대



본지 김한웅 부장

신종플루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연일 이어가고 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우리로서는 매년 마음 편하게 지나갈 수 없는 동절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 근심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도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우리 업계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 이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계육업계에는 AI외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대의원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육계자조금 문제가 있고,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난계대 질병 근절 문제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타결에 이어 한층 우리들에게 다가온 한·EU FTA 타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들이다.

하나 같이 모두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품목 대표조직까지 결성해야 한다고 하니 산 넘어 산이고,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힘들지만 닭고기 업계 관계자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보이지 않는 대목이기도 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품목 대표조직 육성방안 중의 하나로 결성된 ‘계육산업 발전대책 연구회’의 회원이 9월말 현재 지난 천안회의 시점보다 18명이 늘어 총 63명에 달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는 육계 계열화사업체의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계육산업 발전대책 연구회에 가입함에 따라 연구회 모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정형화된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리 육계 및 닭고기 업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다.

‘계육산업 발전대책 연구회’는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계육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이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 모임은 수급조절, 상품개발 등을 자율적·전문적·시장 탄력적으로 담당하는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시장 교섭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의 대표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전초 단계이다.

따라서 연구회가 당초 결성의 취지처럼만 모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업계에 당면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모임을 통해 종계·부화단계, 사육단계, 도계·가공, 유통·수출, 그리고 정책지원에 이르기까지 닭고기를 생산하고 유통·판매하는 전 단계에 걸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폭넓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접근하게 될 것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대다수의 회원들이 바쁜 업무일정으로 인

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주어지 않는다면 곤란을 겪을 것이 당연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임은 특정한 누가 잘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닭고기 업계에는 당장 시급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앞에서 거론한 것 말고도 닭고기 산업이 발전해나가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수많은 난관들에 봉착해 있는 것이 우리 업계의 현실이다.

정형화된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리 육계 및 닭고기 업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그저 그런 모임이 된다면 ‘계육산업 발전대책 연구회’ 자체는 물론이고 전체 육계 및 닭고기산업의 미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임할 때 우리 업계의 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